



“예수님은 주님”

4년차 보고

감독회장, David A. Busic

중앙감독회를 대신하여

제 29 차 나사렛교단 중앙총회

미합중국, 인디애나 주, 인디애나 폴리스

2017년 6월 26일

서론

나사렛 교단은 1907 년과 1908 년에 발생한 성결을 갈망하는 여러 교회와 단체들 간의 일련의 통합 과정을 통해 탄생되었습니다. 첫번째 통합은 미국에서 발생하였는데, 서부 해안 지역의 나사렛 교회가 동부 해안 지역을 대표하는 미국 오순절 교회 연합회와 통합하였습니다. 일년 후에 남부 지역의 그리스도 성결교단이 텍사스의 파 Pilot Point 에서 열린 중앙 총회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통합의 정신은 누구나 알만 한 것이었습니다

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투표를 앞둔 결정적인 순간에 Uncle Buddy 라는 애칭으로 불리우던 Bud Robinson 목사께서 총회 의장인 Breese 목사께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브리지 박사님, 우리는 그 동안 늘 하나였는데, 그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만큼 이 말을 꼭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장 연설을 하고싶지만 투표 시간을 지연해서는 안되겠고, 투표는 꼭 해야 하겠기에 ‘찬성이요’ 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위를 돌면서 크게 축하하고 싶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향하여 동쪽과 서쪽, 그리고 남쪽의 나사렛 교인들이 모두 하나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제발 좀 우리를 더욱 더 재촉해서 모두 함께 축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정말로 그들 모두가 그렇게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찬성 투표를 하였고, 대의원들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심에 대한 확신과 일치의 표시로 손을 잡고 천막 주위를 돌면서 행진하였습니다.

그 다양한 출신 지역의 그룹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적이며 또한 집단적인 성결의 가능성과 필요성 때문이었으며, 복음전파에 대한 공통의 열심, 그리고 다른 여러가지의 신학적 교리 때문이었습니다. 통치 구조와 리더십의 방식, 성찬식의 절차, 그리고 구체적인 윤리체계 등 여러가지 면에서 다른 점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의 부수적인 차이점들이 나사렛 교단의 초창기의 조화의 정신을 위협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일치를 저해하는 심각한 위험 요소가 있음을 자각한 당시의 중앙감독 Phineas F. Breese 목사와 Hiram F. Reynolds 목사는 기도하면서 그 다른 점들을 초월하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연합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일치를 위한 그들의 목적, 즉 그들의 ‘주제와 노래’가 바로 “성결한 교회, 그리고 거룩한 위임을 받드는 교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선교의 사명을 간직한 교단이 아니라, 선교적 삶을 사는 교단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은 세상을 향한 이러한 성결의 사명이 나사렛 교단으로 하여금 일치의 노선을 견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바로 1980 년도의 제 20 차 중앙총회의 대의원들로 하여금 ‘세계화’라는 개념을 교회론의 기초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교단을 단지 “국가 간의 교회들의 자율적 연합체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호 연결된 연회와 개교회의 조합”이 되게끔 하였습니다 (Ingersol, *Past and Prospect*, 86).

다분히 국가 간의 경계를 초월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교단이 추구하는 세계적인 조화를 구성하지 못합니다. 모든 개교회가 근접성이나 지리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동일한 사명과 메시지에 연합하여 점조직과 같은 연합체계를 이룩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합니다. 초창기의 나사렛 교인들은 그것을 바로 ‘결합’ (the connection)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고집스러운 집착”(Culbertson)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교단의 지배 체제 자체를 세계의 각 곳을 선교지로 삼는 일에 적절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국가 간의 경계를 과연 교회의 경계로 받아들여야 할 지에 대해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우리의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이는 어쩌면 개신교 역사상 유래가 없는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일이었습니다. 협의와 조화를 통한 교단의 민주적 정서를 유지하면서, 또한 동시에 참으로 세계적인 교단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공식 기록물 보관장인 Stan Ingersol 박사의 견해에 따르면, 그것은 나사렛 교단의 중앙총회가 “다른 어느 교단보다도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장 다양한 전체 총회...” (Ingersol, *Past and Prospect*, 86)가 되기로 작정한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태평양, 유라시아, 메소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등 162 개 나라와 165 개의 언어, 그리고 250 만명의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곳에 모여 거대한 세계적 교회의 성스러움을 나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비전 하에 중앙감독회는 금번 중앙총회의 주제를 “한 몸, 한 영, 한 소망, 그리고 한 주님”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된 세계적인 성결 교단입니다!

환영과 감사

중앙감독회를 대신하여 여러분 모두를 부활의 주님이시며 다시 오실 왕인 그분의 놀라운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 29 차 나사렛 교단의 중앙총회에 오신 대의원 여러분과 특별 손님들, 그리고 세계 여러 곳에서 온 라인 실황 중계로 총회를 참관 중인 모든 나사렛 교인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고후 13:14)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먼저 미국 인디애나 주의 인디애나 폴리스 시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여섯 번째 열리는 중앙총회를 주관하기 위해 애쓰신 인디애나 연회의 교우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중앙감독회는 이번 행사를 전체적으로 준비하신 중앙총무 David Wilson 박사와 그의 팀들의 탁월한 준비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 모이기위해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그룹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세계 도처의 수 많은 분들의 처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전쟁의 참화를 겪고있는 사람들도 있고, 기근의 위협과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 등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 자체가 굉장한 인내와 성실을 요구하는 지역에서

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여기며, 우리 교단의 정신인 ‘결합’을 가능케 하기위해 감당한 헌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문화의 장벽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각할 수 있으며, 이 거대한 성도의 교제가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사실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금번 중앙총회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의 기초는 바로 기도입니다. 중앙감독교회의 상임 대변인이며, 명예 중앙감독이신 Eugene Stowe 박사님은 1993년부터 25년간 중앙감독으로 봉직하셨습니다. 올 해 95세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정하십니다. 본 총회를 위한 개회 기도를 그분께 부탁드립니다.

Eugene L. Stowe 박사의 나사렛교단 중앙총회를 위한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제 29차 중앙총회를 개최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는 겸손과 희망의 마음을 갖고서 주님의 임재 앞에 섰습니다. 중앙감독교회를 대신하여 감독교회장인 David Busic 박사께서 지난 4년 간의 활동에 대한 보고를 할 때 거룩하신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그에게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의 음성이 금번 중앙총회의 기초와 같은 것이 되어서 분명하고 권세 있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제

금번 중앙총회의 주제는 에베소서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에베소서는 고린도와 갈라디아와 같은 특정 지역의 교회의 상황을 시정할 목적으로 쓰인 책입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 대한 일종의 지침서와 같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해하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특히 에베소서 4장은 기독교론적이며 또한 선교적인 취지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만유의 아버지인 까닭에 교회의 연합에 관한 기초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사명을 성취하고 그의 몸을 세우기 위해 그의 교회에 나누어 주신 은사에 대해 말하며, 연합이라는 궁극적 목적의 실현을 위해 은사를 부여하는 일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총만함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함과 완전함을 다른 방법으로는 찾을 길이 없다고 경계하기도 합니다.

‘한 주님’께 대한 믿음이 모든 형태의 일치에의 기초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또 하나의 다른 종교 체계가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여러가지 방법 중의 한 가지도 아닙니다. 인간적이기 위한 방법이거나 자기실현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모든 관계성을 통틀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예수는 ‘하나의 길’이

아니며 ‘길 자체’입니다. 그는 ‘하나의 진리’가 아니며 ‘진리 자체’입니다. 예수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시적 형체이며,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을 드러냅니다. 그가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초 태생입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로 묶는 결연 체이며, 우리의 신앙의 저자요 완성 자입니다. 그가 교회의 머리이며 모든 만물보다 우선합니다!

그가 중심이며 감독자입니다. 그분이 기초이고...만물은 부수적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지의 여부가 실로 중요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주인은 시저입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시저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며, 혹은 국가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에게는 국가와 정부가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말하면 그분 외에는 다른 아무 것도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같은 선포에는 오직 두 가지의 적절한 반응이 있을 뿐인데, 예배와 제자훈련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가운데 매사에 그분을 닮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바를 우리도 행하고자 하며, 그의 삶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 중에,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살아나야만 합니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제자훈련이 마치 선택 사항처럼 여겨진 나머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해 우리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교회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의 교회에 대한 이해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조심하지 않으면, 마치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분인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우리의 편견을 강화 시키고, 때로는 두려움의 원인마저 지극히 타당한 것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우리는 결코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주인입니다.* 우리는 그의 연장선에 불과하며 결코 그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반대되는 식의 성결을 추구한다면 회개해야만 합니다.

교회와 교단으로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 중심적 이어야만 합니다. 그가 능력을 부여하며, 그 분만이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최고의 ‘나사렛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단의 사명 선언문을 “모든 나라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정한 이유입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우리 교단의

삼중의 핵심 가치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성결 인이며, 선교하는 사람들”이라고 정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위한 사명과 위임을 재차 확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교단의 현황

2 세기의 초대 교부 중 한 사람인 Iranaeus 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생명으로 충만한 개인 개인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일 것입니다.

109 번째를 맞은 나사렛 교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강하고 생명력 있는 교단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중앙 감독교회의 공통된 견해를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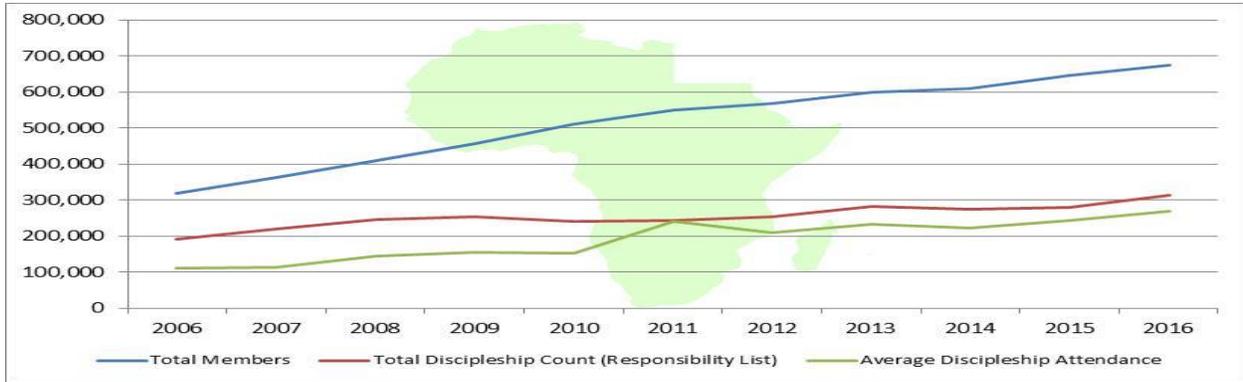
나사렛 교단은 1908 년에 10,034 명의 회원과 228 개의 교회, 11 개의 연회, 32 명의 자원 선교사, 그리고 4 명의 파송 선교사 (케이프 베르데와 인도, 멕시코, 그리고 일본)로 시작하였습니다. 그 해에 모금된 현금 총액은 미화 \$140,000 이었고, 그 중에 \$12,000 이 “해외 선교 비” 명목으로 모금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50 만명의 회원과 22,000 개가 넘는 교회, 500 여 개의 연회, 그리고 700 명이상의 선교사들이 80 개 나라에 파송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그대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 지어다” (계 7:21) 입니다.

지난 4 년 동안 우리 교단의 결합체인 각 지구마다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였습니다. 숫자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규모와 그의 선하심을 모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이지 그 말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결의 사람들은 “은혜 안에서의 성장”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거기에는 책임감이 반드시 수반됩니다. 숫자적인 성장과는 별도로 과연 참된 열매가 있는지의 여부를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지난 4 년 간의 각 선교 지구들의 보고:

아프리카 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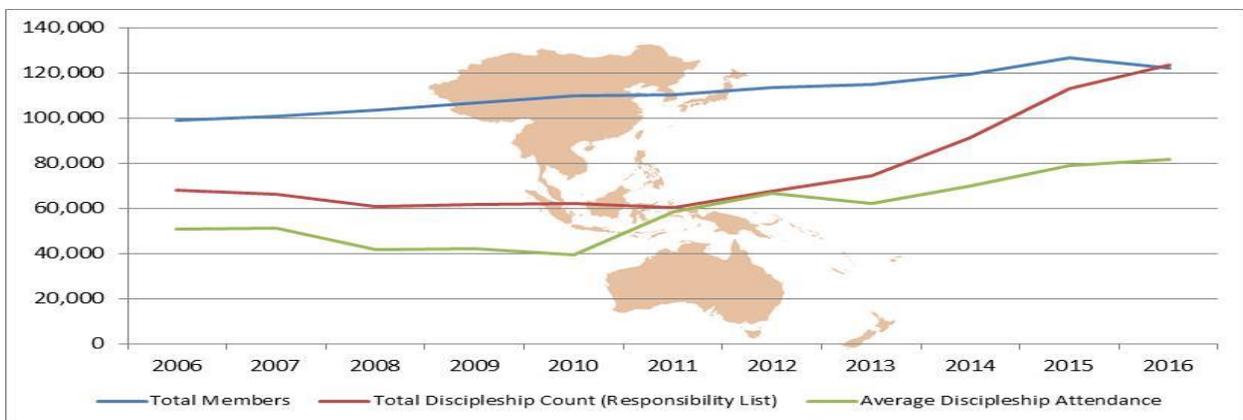
아프리카 지구에서는 총 82 가지의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각종 공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4년 간의 활동 개관 (온라인 상의 통계):

- 705개의 교회 개척
- 147,062명의 신입 나사렛 교인
- 미화 \$916,951의 세계전도 기금 납부
- 170,768명의 개종자
- 76,842 명의 세례자

분석: 아프리카의 나사렛 교인의 성장은 전 방위적이어서 모잠비크와 남아프리카와 같은 기존 지역 뿐 아니라 Benin과 Togo와 같은 새로운 지역에서도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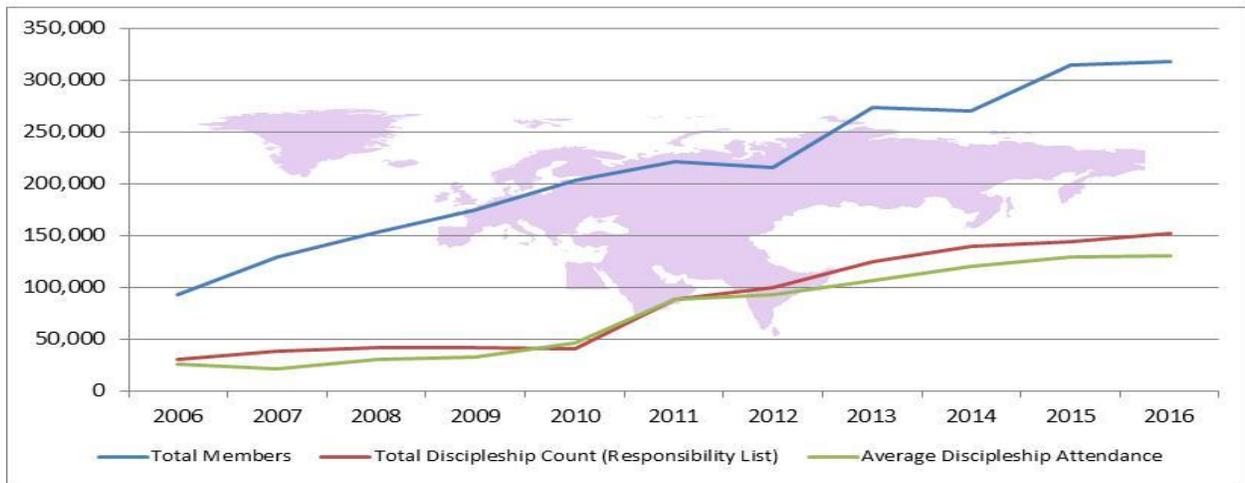
아시아-태평양 지구는 총 28 가지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각종 공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4년 간의 활동 개관 (온라인 상의 통계):

- 144 개의 교회 개척
- 27,241 명의 신입 나사렛 교인
- 미화 \$1,360,477 의 세계 전도 기금 납부
- 37,357 명의 개종자
- 12,039 명의 세례자

분석: 아시아-태평양 지구의 큰 폭의 성장은 몇 군데의 보다 작은 규모의 성장과 함께 파푸아 뉴기니와 필리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자훈련 과정의 등록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예배 참석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유라시아 지구



유라시아 지구는 46개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각종 공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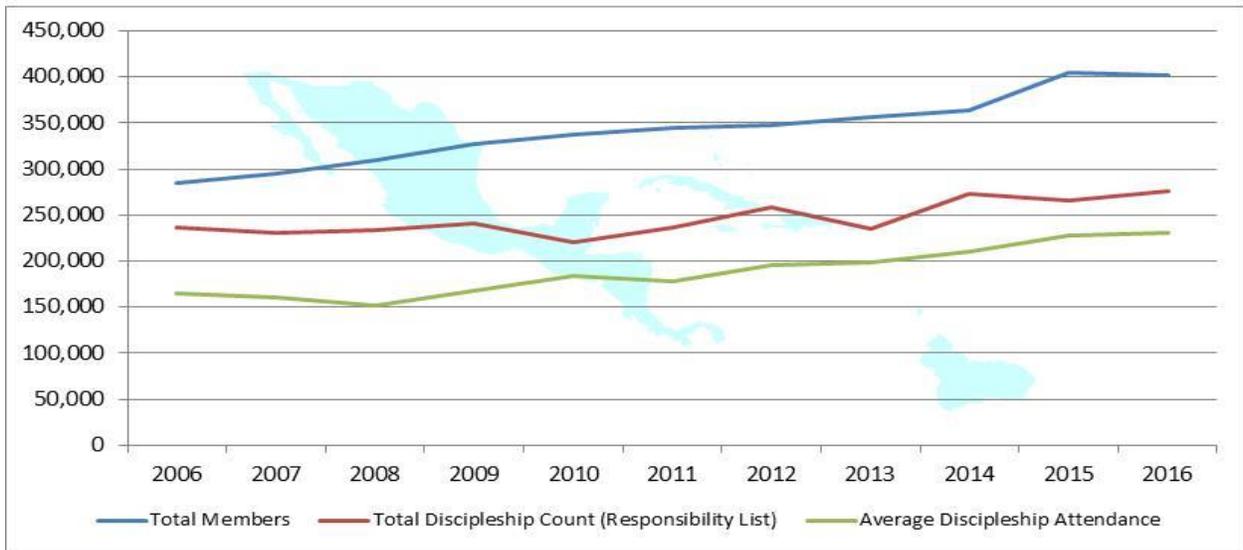
4년 간의 활동 개관 (온라인 상의 통계):

- 2,286개의 교회 개척
- 107,194명의 신입 나사렛 교인
- 미화 \$1,366,992 상당의 세계전도 기금 납부
- 179,275명의 개종자

➤ 96,761 명의 세례자

분석: 유라시아 지구의 교인 수 증가는 방글라데시와 인도, 그리고 그 외 인도의 부속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자훈련이 증가하면서 교인 수의 증가가 견고해 졌습니다.

메소아메리카 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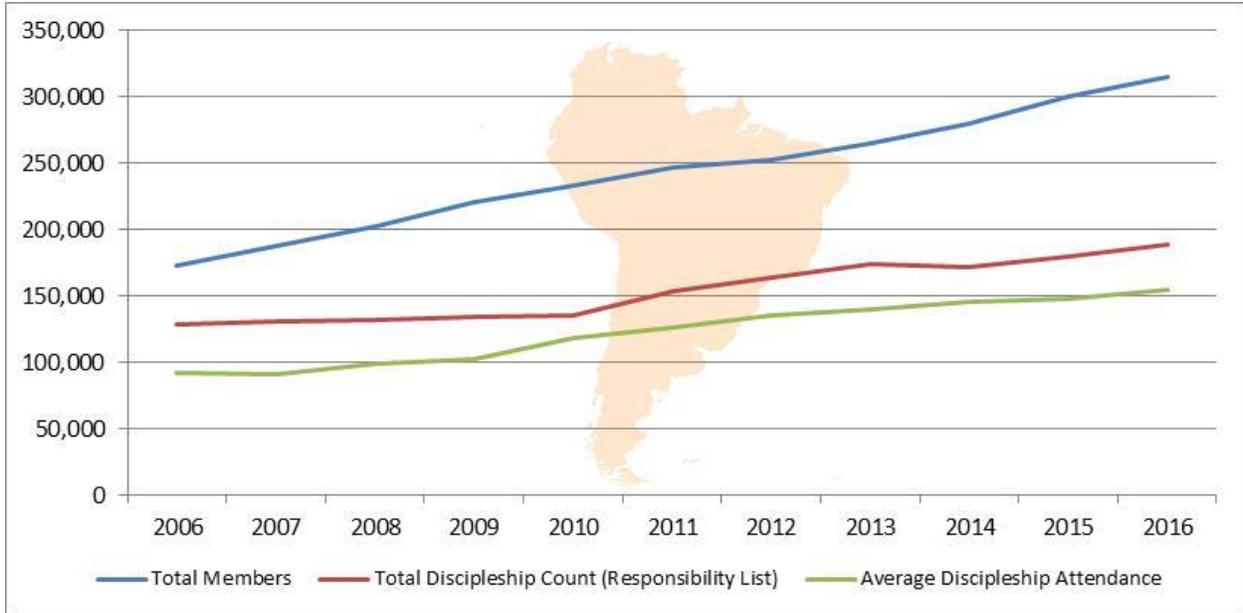
메소아메리카 지구는 13개의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각종 공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4년 간의 활동 개관 (온라인 상의 통계):

- 305개의 교회 개척
- 93,189 명의 신입 나사렛교인
- 미화 \$1,710,337 상당의 세계 전도 기금 납부
- 110,369 명의 개종
- 52,132 명의 세례

분석: 메소아메리카 교인수의 증가 중 가장 큰 부분이 기존의 하이티와 과테말라, 그리고 멕시코 등지에서 있었으며, 동시에 상당히 많은 수의 증가가 보다 새로운 지역인 수리네임과 아루바와 같은 곳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남아메리카 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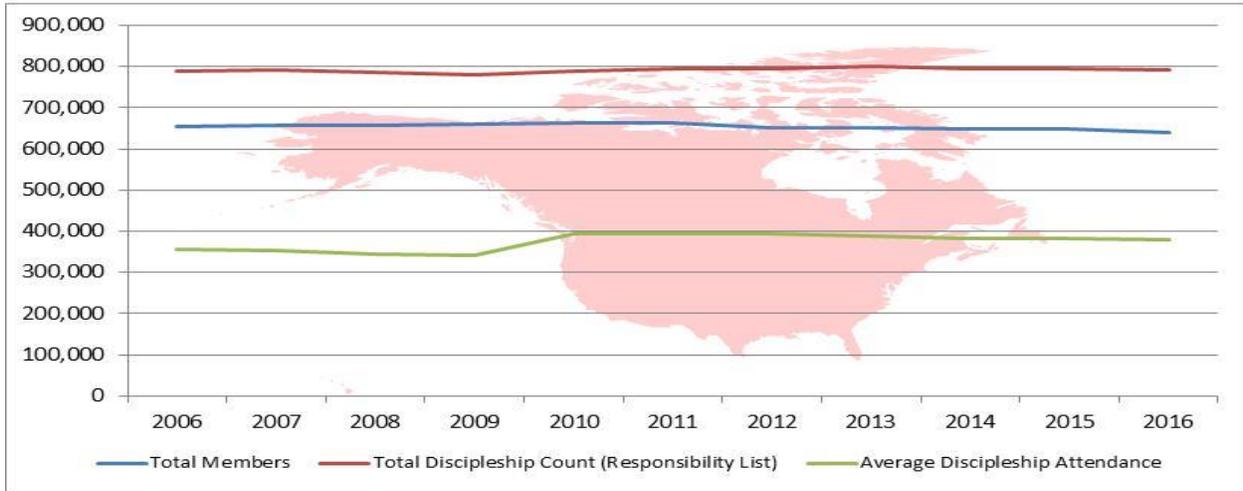
남아메리카 지구는 6개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여 각종 공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4년 간의 활동 개관 (온라인 상의 통계):

- 201개의 교회 개척
- 80,712 명의 신입 나사렛 교인
- 미화 \$1,041,951 상당의 세계 전도기금 납부
- 139,254명의 개종자
- 45,592 명의 세례

분석: 남아메리카 지구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지난 10년간 매년 교인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브라질과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등지에서는 교인 수가 배가되었습니다. 제자훈련 참석 숫자 역시 비록 출석수만치는 아니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지구



미국과 캐나다 지구는 33 개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각종 공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4 년 간의 활동 개관 (온라인 상의 통계):

- 543 개의 교회 개척
- 104,217 명의 신입 나사렛교인
- 미화 \$146,573,497 상당의 세계 전도 기금 납부
- 203,379 명의 개종자
- 78,253 명의 세례자

분석: 미국과 캐나다 지구의 교인 수 증가는 초 문화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히스패닉과 하이티안, 그리고 그 외 다문화 그룹의 교인들이 지난 십 년 간 무려 수 천명이나 증가하였습니다. 제자 훈련 참가 수가 감소하는 회원 숫자를 반영합니다.

요약

각 지구 별 교인 수를 모두 합하면 전 세계의 나사렛교인의 수는 250 만명 가량입니다 (2,471,553).

지난 4 년 간 거의 60 만명의 (559,615) 신입 교인이 생겼습니다.

추가로, 84 만명 (840,402)의 개종자가 생겼고 삼십육만 이천 명 (361,619)가량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단의 총 교인 수의 74.1 퍼센트가 이제 미국과 캐나다 지구 밖의 세계 선교지역에 속한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10/40' 창에 속한 나라가 66 개나 되는데, 이 지역이 바로

복음에 대해 가장 배타적이며 기독교회가 가장 적은 곳입니다. 나사렛 교단은 바로 이 지역의 40 개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교단은 지난 4 년간 공식적으로 세 나라에 새로이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쿠라카오와 몽골, 그리고 싱가포르 입니다. 가까운 시기에 보다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개 교회와 연회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 결코 'C' 타입의 교회, 즉 대형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작은 규모의 개 교회들을 개척하였습니다.

우리는 개 교회의 힘을 믿습니다. 나사렛 교단의 장정은 이르기를, “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의 믿음과 사명의 반영이다”라고 말합니다. (장정, 교회와 조직의 서언). 다시 말하여, 우리는 성령께서 교회의 맨 밑 바닥에서부터 최 상층 부에 이르기까지 활동하신다고 믿습니다. Will Willimon 주교 역시 분명하게 이르기를, “예수님은 그의 최고의 사역을 개 교회의 뜻으로 맡겨 두었습니다” (Willimon, *Bishop*, 143)라고 말하였습니다.

어떤 종교 단체들은 복음 이전의 사역,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마음 받을 닦는 일을 주로 합니다. 반면에 또 다른 기관들은 전도에 매진하며, 구제와 제자훈련, 교회 개척 등을 전담하곤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교’의 중요한 단면들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교단은 아예 이 모든 일을 전부 감당하고 일일이 참여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단의 전 세계적인 차원의 시도,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선교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성결 교단*에로의 발전에 있습니다. 즉 온 세계에 성결의 메시지를 전하는 건강하고 자생적인 교회들을 개척하고 강화 시키는 일입니다.

중앙감독회는 개 교회를 가리켜 “알려진 시간과 장소에서 정해진 지도자와 함께 영적인 성장과 예배 또는 가르침을 위해 모이는 일단의 사람들로서, 나사렛 교단의 메시지와 사명과 연합하여 개 교회로 인정받고, 연회와 중앙 차원의 교회 통계에 보고된 자들” 이라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놓고 볼 때 (이 보고서를 준비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4 년 동안 2,964 개의 새 교회가 조직되었으며 23 개의 새 연회가 조직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22,392 개의 조직 교회와 471 개의 연회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우리 교단은 현재 8,182 개, 즉 37% 가량의 미조직 교회가 대기 중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축복이며, 사명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지구는 교회 증가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구 담당관인 Robert Broadbooks 박사는 2012 - 2016 년 사이에 653 개의 새로운 교회가 등록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1955 - 1959 년 사이의 5 년 동안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새 교회들의 주일

오전 예배 참석 숫자는 총 16,000 명이며, 7,104 명이 회심을 경험하였고 총 \$ 28,500,000 의 헌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위한 기도부대’ 가 가동하여 2030 년까지 10,000 개의 새 교회가 탄생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역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은 세계 어느 지역의 목회자들보다 월등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역을 맡기신 나사렛 교단의 목회자들로 인해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중앙감독교회는 지난 4년 동안 3,060 명의 남녀 목회자들에게 안수하였습니다. 총 17,848 명의 안수 목사와 820 명의 평신도 목회자를 포함하여 도합 18,668 명의 목회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10,006 명의 연회 인준 전도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 127 명의 등록된 부흥사와 436 명의 기관 목회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양 떼를 위하여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세계 선교

영국의 선교학자인 Lesslie Newbegin 은 교회의 “선교적 차원”과 “선교의 의지” 간의 분명한 차이에 대해 역설합니다. 모든 교회가 선교적 차원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 일부만 선교적 의지를 발휘하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교회의 선교 사명은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선교의 정신’이 바로 우리 교단 초기의 결합에 있어서 핵심적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4년동안 중앙위원회에서는 41 명의 선교사들을 임명하였습니다. 이로써 모두 50 개 나라 출신의 700 명의 선교사들이 253 명의 자원 봉사자들과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309 명의 선교사 자녀들과 285 명의 단기 선교 자원자들이 있습니다. 2016 년 한해에만 9,208 명의 Work and Witness 자원 봉사자들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현재 10,502 명의 나사렛 선교사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세계 각 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교단일 뿐만 아니라, ‘보내는’ 교단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는 전혀 다른 형태의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의 문은 우리에게 “선교사란 과연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합니다. 중앙감독교회는 이에 대하여 “나사렛 교단의 선교사는 성령께서 따로 세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파송하고 세계 선교부에서 이 땅 위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 편익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위해 지리와 문화, 그리고 언어의 장벽을 초월하여 성육신 적 언약의 취지를 갖고 나아가도록 확정한 사람”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같은 정의는 나사렛 교단의 선교사에 대한 전통적 이해를 확장시킨 것으로서, 선교사역을 위한 부름을 받았지만 부족한 자원 때문에 전통적인 방식을 따를 수 없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모든 나사렛 교단의 선교사들은 그들의 지위에 상관없이 세계 전도기금과 세계선교부의 지원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교단의 기금이나 구조적 차원의 도움을 받지않는 나사렛 선교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최근에 저는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사도적 역할을 하는 한 분과 마주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수백만 명이 거주하는 한 도시에서 가장 큰 복음주의 교회를 담임하는 분이었습니다. 성결의 복음에 대한 매력 탓에 그는 수 년 전 나사렛 교단에 가입하여 교인들에게 장정의 신조를 가르치면서 교회의 조직을 새로 결성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저는 두 번의 중앙총회를 참석하면서 국가별 행진 시간에 전 세계에 나사렛 교단이 활동 중인 나라들의 국기를 흔드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 나라의 국기를 흔들지 못하는 저의 처지가 몹시도 슬펐습니다. 언젠가 우리 나라의 국기도 함께 입장하게 되는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실로 역사적인 감동의 순간을 맞았는데, 오랜 시간의 기도와 눈물의 결과로 중앙감독교회는 바로 그분의 나라에 새로운 특별 연회를 임명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과 함께 지난 목요일 저녁 국가별 행진 시간에 그 나라의 국기가 펄럭이며 입장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우리 교단의 선교 프로그램은 109년 간의 총화이며 앞으로도 계속 오래도록 지속될 것입니다. 다양한 방식의 기회를 위한 적응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모든 유형의 재 조직은 성결과 주님의 지상명령의 완수를 위한 우리 교단의 선교적 언약과 헌신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를 견고히 붙잡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 즉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계 3:8)라는 말씀을 끝까지 붙잡을 것입니다.

재정

세계 전도기금은 여전히 우리 교단의 세계 선교를 가능케 하는 생명줄입니다.

우리의 생명줄을 강화하기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앙감독교회는 지난 4년 동안 “선교 기금 모금” 위한 연구 조사를 후원하였습니다. 2015년과 2016년의 중앙위원회 모임의 일부분을 이 주제를 위한 분과 토의 시간으로 정하고 우리 교단의 기금 마련 유형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는 다양한데, 몇 가지 중요한 결론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 모금은 단지 더 많은 돈을 걷기위한 것이 아니며, 사명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2. 서로 개인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 해결을 위한 것보다 사람들에게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
3. 현재의 선교 패러다임과 중앙 교단 차원의 세계 선교기금의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선명성이 부족하다.
4. 나사렛 교단의 헌금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세대 간의 간격이 심하다.

기금 모금에 대한 연구 결과로 세계선교국 총무인 Verne Ward 씨와 선교 국 팀이 (국제 나사렛 선교회의 강력한 지원 하에) 중앙감독회와 함께 ‘나사렛 선교 프로젝트’를 시도하고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그 취지는 우리 교단의 선교 체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단기 자원 봉사자들과 재정 지원의 한계, 그리고 교단 전체에 대한 더욱 일원화된 의사소통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개 교회들은 여전히 헌금을 드리는 일에 헌신적입니다. 나사렛 교인들은 헌금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4년 간의 총 헌금액은 미화 35억 달러 (\$3,464,813,283)에 달합니다.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이 “은혜에 풍성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후 8:7).

모든 나라의 각 교회가 드리는 일에 신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로는 미국이 세계 전도기금의 95 퍼센트를 담당하며, 특수 선교를 위한 96 퍼센트의 재정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세계의 환율이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숙지하면서도 희생적인 차원의 헌금 태도는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필요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나사렛 교인들이 세계복음화라는 우리의 공동의 사명을 위해 재 헌신 해줄 것을 바라 마지 않습니다.

사역

다음의 모든 사역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세계 전도기금의 후원을 통해 이뤄진 것입니다. 보고 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 나사렛선교회

세계 전도기금이 선교의 생명선이라면 국제 나사렛선교회는 개교회에서 기도와 정보, 헌금, 그리고 교육을 통해 선교 후원을 가능케 하는 ‘이동 촉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 교단의 선교가 지속적으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게 되는데 대해 감사하며, 그와 더불어 국제 나사렛선교회의 각 분야에도 그같은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국제 나사렛청년회

국제 나사렛 청년회는 우리 교단의 세계 선교의 역동적이며 활동적인 단면입니다. 밀레니엄 세대들 (21세기 초기에 젊은 청년의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에 대한 다양한 조사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자료의 대부분이 수치가 반영하는 부정적인 면들에 대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나사렛 청년회를 통해 우리가 접하는 청년들에 관한 소식은 교단에 대한 그들의 사랑과 거룩한 삶에 관한 열정으로 충만한 것들입니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크리스천의 94 퍼센트가 4세-30세 사이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2016년 한 해만 하더라도 우리 교단의 조직 교회 중 24 퍼센트가 회중 가운데 ‘청년’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5,353개의 나사렛

교회에 12세-29세 사이의 교인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셈입니다. 계수 방법 상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주의를 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실에 대해 탄식을 하면서도, 또한 많은 수의 청년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청년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잘 알아서 상호보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일학교 및 국제 제자훈련 사역 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모든 나사렛 교인들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거룩한 삶의 방식을 계발하여 사람들이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형상화 되는 것입니다.

세계 각 곳에서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 성숙을 도모해 줄 강력하고 초 문화적인 제자훈련 커리큘럼에 대한 요청이 많습니다. 중앙감독교회는 그러한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한 주님, 한 신앙, 한 세례: 나사렛 교인의 신앙 형성을 위한 핵심적 가르침*을 제작하였습니다. 바로 이 나사렛 교단의 교리문답은 세계 각 지구의 학자들과 언어 별 위원회들을 포괄하는 세계적 차원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금번 중앙총회 중에 우선 4개국의 언어로 출시될 것이며, 앞으로 보다 많은 번역판이 출간될 것입니다. 향후 우리 교단의 신앙 형성을 위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모든 교회가 이 훌륭한 제자훈련 자료를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제 교육 위원회

나사렛 교단은 초창기부터 기독교적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는 희생적으로 투자해 왔는데, 이는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 형성과 관련하여 고등 교육기관의 존재가 필수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1923년 당시 중앙 감독이었던 H. F. Reynolds 박사는 “우리 교단의 학교들의 교직원과 학생들의 희생은 역사 속에서 우리의 운동의 거대한 재산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는데, 그 말이 지금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나사렛 교단의 국제교육위원회 산하에는 35개 국가의 52개의 단과 대학과 종합대학, 그리고 대학원이 산재해 있으며, 총 학생 수가 52,000명에 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사렛 구제사역부

나사렛 교단은 나사렛 구제사역부 (NCM)를 통하여 전 세계 각 곳에 구제와 함께 변화를 도모하는 사역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구제사역부는 개교회들을 움직여서 지역 사회 내의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라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실천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나사렛 구제 사역부는 세계 각 곳의 교회와 연회들과 협력하여 서 아프리카의 에볼라 사태를 포함하여 40곳의 자연 재해와 비상상황에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195가지의 교회 주도 형 발전 계획들을 통하여 음식물과 식수 공급, 위생과 보건 시설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추가로, 경제발전과

건강관리, HIV 와 AIDS 환자들을 위한 사역, 그리고 인신매매에 맞서 여성과 어린이들의 인권 및 지위를 향상하는 일에도 매진하였습니다.

지난 4년 동안 37개 나라에 산재한 164개의 나사렛 어린이 발전센터를 통하여 19,0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학교 교육과 건강 관리, 직업 기술, 그리고 영성 확립에 필요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중 거의 12,000명의 어린이들이 나사렛 구제사역부의 어린이 후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각 곳의 나사렛 교인들의 후원을 통해 이 어린이들이 각각 나사렛 교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6년 간에 걸친 시리아의 내전은 지역사회와 가족들을 산산이 부서뜨렸습니다. 일 천 일백만명 가량이 폭력과 박해로 인해 가족과 가정을 잃었습니다. 오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타국에서 난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 간 실로 많은 사람들이 이들에 대해 그저 관심만 기울이고 있는 동안 나사렛 교단은 내전이 발생한 초창기부터 난민들을 돌보는 일에 종사하였습니다. 요르단과 레바논에 있는 개교회들은 3,000여 난민 가족들에게 정기적으로 음식과 생필품들을 공급해오고 있습니다. 요르단과 레바논에 있는 네 곳의 학교에서는 전쟁으로 흩어진 400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전 세계의 나사렛 교인들이 이 어린이들을 위해 장학 성금을 보내주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지만 특별히 Tarek이라는 이름의 어린이에 관한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타렉은 가족과 함께 시리아에서 요르단으로 피신해왔습니다. 그곳에 도착할 당시 타렉은 심각한 공황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증세 중 한 가지로 말을 전혀 못하고 더듬거리기만 하였습니다. 나사렛 교단의 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아 공부하면서 사랑과 소망을 경험하였고 점차 전인적인 회복을 보이는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더듬거리지 않습니다. 트라우마가 극복되면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되고 지금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최근의 한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곁과 속이 다 망가졌었는데...나사렛 교회와 학교에서 저를 도와주어서 이제는 제가 살아있는 사람 같아요.”

‘예수’ 영화 추수 동반 사역

올 해로 예수 영화 추수 동반자 사역은(JFHP)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활동의 20년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이 처음 시작된 이후로 예수 영화는 일 천 사백만 명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22퍼센트가 지난 4년 간에 달성되었으며 무려 삼백만 명이 결신하였습니다. 2013년 이후로 모두 118,895회나 상영하였으며 일 천 삼백만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그 후 이백만 명이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나사렛 출판사

나사렛 출판사(NPH)는 105개 국에 산재한 우리 교단의 교회들을 섬기고 있으며, 여전히 웨슬리안 성결교단의 문서 발행 분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출판사입니다. 운영과 재정 분야의

여러가지 도전에 직면하여 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몇 가지의 큰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회사를 안정시키고 새로운 상품을 소개하기 위한 시도들이 효과를 발휘하여 지난 2년 동안 경상 수입 분야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중앙감독회는 나사렛출판사의 직원과 이사회가 출판사의 미래를 재 설정하기 위해 행한 놀라운 노력과 공헌에 대해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나사렛 교단을 위한 전적인 봉사를 주안점으로 하되, 보다 넓은 의미의 웨슬리안 성결 교단을 아우르는 출판사가 되고자 하는 취지로 나사렛 출판사는 2018년 2월에 그 이름을 The Foundry Publishing (주조장 출판사)로 개명하기로 하였습니다. 믿음을 '정제하는' 출판사라는 의미입니다.

중앙감독회의 권고 사항

저는 저와 같은 다섯 분의 동료 중앙 감독들, 즉 최고의 동기 부여 자들이며 고유한 은사를 지닌 분들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종의 마음을 간직한 우리 교단의 지도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동료 중앙감독이기 전에, 그들은 모두 저의 개인적 친구들입니다.

중앙감독회는 올 해 두 분의 감독, 즉 강하며 분별 있고, 창의적인 지도력의 소유자인 Jerry Porter 박사와 J. K. Warrick 박사님을 떠나 보내게 되었습니다. 두 분의 봉직 기간을 합쳐 32년 간 중앙감독 직을 수행하면서 교단 전체에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두 분이 일관되게 유지해 온 자비로운 선교의 열심과 용기 있는 목회자의 지혜에 대해 교단이 큰 빛을 쬐었습니다.

또한 탁월한 세계선교국 팀과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모릅니다. 세계선교국의 직원들과 각 지구 조정관들, 지역별 전략 책임자들, 연회감독들, 교육기관의 장들, 개교회 목회자, 그리고 성령 충만한 평신도 지도자들로 나사렛교단의 메시지와 사명을 사랑하는 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3년 중앙총회에서 중앙감독직의 미래에 대한 연구를 요청하였는데, 그 일이 지난 회기 중에 실현되었습니다. 명예 중앙 감독인 Jim L. Bond 박사와 Jesse C. Middendorf 박사께서 연구 팀을 꾸려 이 중요한 문제를 맡아 주신 데 대해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 연구 조사의 결론과 권고안이 지난 토요일의 대의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발표되었습니다.

중앙감독 직이 중앙총회와 중앙위원회와 함께 국제 나사렛교단의 삼대 일치와 연합의 상징으로 계속 남아있어야 함을 강력히 확신하는 바입니다. 목사 안수와 세계 순회 업무는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중앙감독의 고유 기능으로 지속될 것이며, 교단의 계획적인 성장의 측면에서도 더욱 실제화된 중앙감독의 감독 기능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다음과 같은 중앙 감독회의 권고안을 중앙총회 앞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린고안 1 : 나사렛 교단의 본질

1923년에 열린 중앙총회의 중앙감독 4년차 보고에서 H. F. Reynolds 박사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셨습니다: “우리 교단의 신조 상의 많은 차이는 대부분 비본질적인 것에 속합니다...우리들 각자의 견해 상으로는 많은 차이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대부분이 일치합니다.” 그 당시 우리 교단의 회원 수는 53,000명에 불과하였는데, 이후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현재의 회원 수의 삼분의 일에 해당하는 800,000명의 회원 수가 지난 10년 동안에 증가하였습니다. 각 지구마다 우리 교단의 교리와 역사, 신학, 선교, 모금, 그리고 상호의존적 결합 등에 대한 기초적인 가르침을 간략하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중앙감독회는 2014년에 ‘나사렛 교단의 본질’이라는 간행물을 소개하였는데, 이는 ‘우리가 누구이며’ (정체성),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사명)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여러 목회자들과 교사, 그리고 평신도들의 반응이 기대 이상으로 호의적이었습니다. 그 간행물이 우리 교단의 교회들을 돕는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번역 팀들의 노고로 인해 이제는 모두 33개 국의 언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린고안 2 : 신조

나사렛 교단 자체의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할 때 뭔가 분명한 신학적 중심을 필요로 합니다. 선교를 위한 교단 체제의 분산 효과를 위해서도 확고한 신조의 내용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교단의 웨슬리안 성결 교리의 다양한 표현방식을 가리켜 ‘큰 천막’과 같은 것으로 묘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신앙의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 충실하면서, 비본질적인 요소들에 대해 보다 많은 자유를 부과하는 노력과 같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 표현에 빗대어 “그 천막의 사이즈를 누가 정하는가”라는 물음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마다의 크기가 다른 탓에 어떤 사람의 ‘큰 장막’이 다른 사람의 그것보다 작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사렛 교단은 우리의 신조가 바로 교단의 중심 점이며, 온갖 변화무쌍한 철학과 신념체계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견고한 돛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단의 신조를 변경하는 모든 시도는 세심한 기도와 사려 깊은 분별 하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2013년 중앙총회에서 중앙감독회로 하여금 다음 4년 동안 신조의 다양한 내용들에 대한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교단 내의 탁월한 신학자와 목회자로 구성된 일단의 조사위원회가 여러 번의 회합을 거쳐서 신조의 내용을 검토하고 개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중앙감독회는 그것을 전달받고 세심한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정안이 장정의 내용을 더욱 강화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번 중앙총회에서 그것을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 결의안들은 단순히 우리의 교리에 대한 ‘재 정의’가 아니라, 더욱 더 선명한 이해를 위한 ‘재 작성’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신조는 44개국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또 다른 2개 나라의 언어로의 번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린고안 3 : 인간의 성과 결혼

중앙감독교회는 세계 각지의 나사렛 교단의 신학자, 윤리학자, 목회자, 심리학자, 그리고 상담가들로 구성된 일단의 그룹을 만들어 장정의 규정들을 연구하고 문서를 작성하여 웨슬리안 성결교리의 관점에서 인간의 성에 관한 법적인 규정을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단의 각 지구를 대표하는 13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인의 행동 규약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그들이 여러 차례 서로 대면하여 회의를 가졌고, 화상 통화와 이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였습니다. 그들의 연구는 철저하고 부지런하며, 때로는 어려운 난제들과 씨름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인간의 성에 관한 대화는 지금 이 세대에 우리 교단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화는 “은혜와 진리”로 가득한 것이어야 합니다. 중앙감독교회는 그들의 연구결과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접수하였으며, 전심을 다하는 일치의 마음으로 이번 중앙총회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 법적 규정의 매 단어마다 조심스러운 조사과정을 거친 탓에 한 부분이라도 변경하면 문맥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총회 석 상에서 재편집하는 일 없이 그 문구 전체를 일괄적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윤리적 문제가 우리 교단의 중요 의제로 부각될 때마다 우리는 문화적 규범이 우리의 지침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하고자 합니다. 성경과 전통, 그리고 예수의 영만이 우리의 안내자입니다. 문화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전혀 다른 유형의 선택을 강요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옥죄는 상황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는다면 정말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불편함을 무릅쓰면서도 성경이 우리를 하여금 친숙한 문화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선택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정말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과연 우리의 주인일까요?

이처럼 중요한 의제들에 대해 우리가 교단적 차원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우리의 말은 온전한 사랑의 톤을 지닌 것이어야 하며, 우리의 행동은 나사렛 교인으로서 합당한 너그러움과 친절함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린고안 4 : 도시 선교

역사학자인 Rodney Stark 은 “모든 야망에 찬 선교 활동들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도시를 중심으로 한다” (Rodney Stark, *Cities of God*)고 말하였습니다. 중앙감독교회는 우리 교단의 도시 선교의 필요성에 대하여 점점 더 긴박함을 느낍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30년이 되면 인구의 열 명 중 여섯 명이 도시생활을 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2050년에는 열 명 중 일곱으로 증가하는데, 이는 총 세계 인구 중 64억 명의 수치에 달하는 것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구의 경우 인구 백만 명 이상의 도시가 153개나 되는데, 이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겨우 5퍼센트 내외입니다.

나사렛 교단의 도시 선교 전략의 거의 대부분은 구제사역 센터와 다 인종 교회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교단적으로 지속해야 할 분명한 표본이긴 하지만, 점점 ‘도시화 되는 세계’의 실정을 고려할 때 그러한 식의 접근방법이 유일한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도시전도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구조보다는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세계선교본부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이미 수 차례의 도시 선교 전략을 위한 자문회의와 포럼을 가지면서 중요한 토론의 기회를 거쳤습니다. 보다 많은 계획안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각 지구마다 열 개의 거대 도시들을 선정하고 선교의 초점을 확장해 갈 것입니다. 이 일을 교단적 차원의 집중적인 기도 제목으로 삼고 전략적으로 강조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골이나 도시 근교 지역의 중요성을 무시하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우리의 교구이며, 다만 Timothy Keller의 말처럼, “도시가 늘어나는 만큼 세계가 늘어나는 것이다”라고 여길 뿐입니다.

Phineas Bresee는 자신의 일기에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도시의 중심지에 한 장소를 확보하고 그곳이 거룩한 성령의 불의 진원지가 되어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 나의 오랜 숙원이다.” 여러분이 속한 각 지구의 도시들이 거룩한 성령의 불의 진원지가 되도록 하는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안 5 : ‘비전 2020’

우리 교단의 전체적인 성장은 지속되고 있지만, 지난 4년 동안 아주 최근에 있었던 것과 같은 식의 성장 유형을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전을 다시 정해야 할까요? 혹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수치를 재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매사에 “우리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실” 우리의 주님께 청하여 우리를 도우사 그가 보고계신 것을 우리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희어져 추수하게 된 밭에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첫번째 단계는 ‘비전 2020’으로 불리는 신앙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일인데, 이는 2020년까지 교단의 총 회원 수가 350 만명에 도달하고, 250 만명이 정기적으로 예배에 출석하며 또한 제자훈련 과정에 참석하고, 교회 숫자가 5 만개에 달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각 지구마다 이러한 비전을 받아들이고, 수 백 개의 교회와 수 십 개의 연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특별한 일을 이 세대에 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이는 확실히 성결의 의지를 강조하는 복음 전파의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자각과 강조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분명한 교리가 필요하지만, 그것도 역시 전부는 아닙니다. 잘 짜인 예배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찬 예식주의도 전부가 아니며, 구제를 능사로 삼는 일이나, 사회 정의를 앞장 세우는 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말씀과 행함의 철저한 병행, 즉 복음과 행동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일깨운 말씀 그대로입니다 -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리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합 2:2, 3)

하나님의 운동

우리 교단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운동’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지각 변동과도 같이 온갖 문화적 변화가 지구 상의 모든 대륙에 미치고 있습니다. 단 이십 년 만에 ‘공장’의 시대에서 ‘정보’의 시대로의 탈바꿈이 이루어져, ‘구텐베르크’에서 ‘구글’로, 시골에서 도시로, 근대식 사조에서 탈근대화로의 전이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나 그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던 일들이 벌어지는 역사의 축의 이전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버린 세대로 돌이킬 수는 결코 없습니다.

불편함을 느끼던 그렇지않던 간에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거의 미지의 바다에 떠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교단이 웨슬리적 전통을 좋아하지만, 웨슬리 역시 혼자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창시자인 Phineas Bresee 목사께 감사하지만, 그 역시 혼자로는 안됩니다. 다만 우리는 ‘맨 처음’의 ‘나사렛 사람’이었던 예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가 우리의 ‘교정 포인트’입니다. 오직 그분과 교통하며 동행하면서, 우리의 교단을 다시금 ‘예수 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 외에 무엇이든 우리에게 과한 것은 그만큼 모자란 것일 뿐입니다.

미래의 씨앗은 언제나 현재의 태 속에 있습니다 (Hirsch). 모든 씨앗이 숲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 씨앗마다 그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럴 만한 잠재력이 씨앗 속에 있으며, 거대한 화염도 사실은 아주 작은 불씨에서 시작합니다. 나사렛 교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단의 미래 역시 지금의 교단 속에 있으며, 거대한 불을 일으킬 불씨도 지금의 우리 속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1944 년은 제 2 차 세계 대전이 발발한 해입니다. 20 세기의 가장 혼돈스럽고 불확실하던 그 때의 나사렛 교단의 중앙 감독이었던 J. B. Chapman 목사는 당시 중앙총회에서 이런 말을 남겼 습니다: “우리는 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지 연기와 재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우리 교단은 전진하는 동안에만 서있을 수 있는 구조를 지녔습니다. 멈추면 넘어집니다...점점 더 자기 자신을 보존하고자 하는 마음이 결국 우리에게 정체를 강요하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희망은 언제나 공격적입니다. 우리 교단은 전 세계를 받으로 일구며 살아가는 하나의 힘이여야 합니다.”

이러한 식의 역동적 발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개 교회 차원의 급진적인 제자도를 필요로 합니다. 선교를 하나의 사건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운영원리로 삼아야만 합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에 대해 우리 자신을 저지하는 대신, 전적으로 드리는 일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주인이라고 믿는 믿음과 또한 그 믿음 위에서 힘과 용기를 갖고 행동하는 삶을 필요로 합니다.

‘나사렛 교단의 본질’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것으로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서 정말로 ‘나사렛 사람,’ 예수의 본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주인입니다! 이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한 우리는 극단적인 낙관주의자들로서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 (수 9:12) 입니다.

희망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입니다.
그는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세상의 빛이요,
모퉁이 돌이며,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는 참되고 신실하시며,
알파와 오메가이며,
부활과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만 왕의 왕이요, 만 주의 주이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계 5:13)

기도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제출함.

나사렛 교단, 중앙감독회,
Jerry D. Porter
J. K. Warrick
Eugénio R. Duarte
David W. Graves
David A. Busic
Gustavo A. Crocker

bgs@nazarene.org